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성화 수요일 : 3월 5일(수) 사 순 절 : 3월 5일(수)~4월 19일(토)
총 령 주 일 : 4월 13일(주일) 고난주간 : 4월 13일(일)~4월 19일(토)
성화 목요일 : 4월 17일(목) - 세족식
성화 금요일 : 4월 18일(금) - 예수 수난 영화 감상
성화 토요일 : 4월 19일(토) - 달걀 포장 및 부활절 전도
부활 감사절 : 4월 20일(주일) - 부활절감사/새생명초청/총동원/세례식

3.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2025년 4월 1일(화) 새벽 5시 30분 첫날맞이 월삭예배가 있습니다.

4. 교회 차량 보험가입 협조 요청

지난해 교회 차량 사고가 많아 보험금이 2,585,730원으로 예상보다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약사 자동차보험 5개월 할부로 계약을 했는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성도께서는 <차량한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부활절 세례예식 / 세례신청

2025년 4월 20일 부활절 감사예배를 맞이하여 세례예식을 갖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성도분들께서는 담임목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부 : 박태성 / 청소년 : 강민지 박수진 이종빈 정완희)

6. 세례자 교육

세례교육 1차 - 2025년 4월 6일(주일) 또는 주중 약속시간
세례교육 2차 - 2025년 4월 13일(주일) 또는 주중 약속시간

7.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중), 이다남(병가), 박영대(병가), 임명순(무릎인대파열)
김혜숙 권사(디스크 협착증, 통원치료), 정지혁 집사(시험관 출산예정 4/19)

8. 2025년 4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3.4 ~ 4.3)

4/07(월)-이재희 약비 4/12(토)-김가영 약비 4/14(월)-한은총 약비
4/15(화)-김민준 학생 4/20(일)-오현수 형제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3/30 김혜숙 권사
4/06 임명숙 집사
4/13 정애자 권사
4/20 박제연 집사
4/27 이광근 안집사
5/04 이재우 어린이
5/11 임명자 집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3/30	사순절4주 / 태신자 작정4주 선교 헌신의 주일(모로코 소개)
04/01	첫날맞이 월삭예배(성찬예식)
04/03	산상 기도회
04/06	사순절5 / 태신자 만남1주 장기 직원회 (1/4 분기) 세례자교육 1차
04/08	아하브코업 홈스쿨 장기모임
04/11	대한민국임사정부 수립기념일
04/13	종려주일 세례자교육 2차
04/17	성화 목요일세족식, 가양별
04/18	성화 금요일예수 수난영화 감상 아하브코업 홈스쿨 특강

주일 차량 운행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탑동(10:00) ▶화서동(10:10)▶세류동(10:20)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탑동(13:40) ▶화서동(13:50)▶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당 후 진행)		



주사랑 8권 13호
창립 2017.11.25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2025년 3월 30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 태신자작정 4)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사순절 4주 태신자 작정주일 ④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3)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 태산자락정주일 ④) 인도:집례자

- ※ 목 도 시편 32:1~5 인 도 자
- ※ 찬 송 가 찬 214장 다 같 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 ※ 사도신경 다 같 이
-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 성시교독 No.127 사순절(4) 인도자/회중
- 찬 송 가 찬 150장 다 같 이
(갈보리 산 위에)
- 대 표 기도 김혜숙 권사
(기도의 어머니)
- ※ 성경봉독 여호수아 5:2~9 (구 325) 김혜숙 권사
- 광 고 인 도 자
- 말씀인도 너희의 부식들 칼을 갈아라 담임 목사
- 봉헌찬송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헌금위원 : 한은총 어린이)
- ※ 축 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금함에 넣어주세요)

- 십 일 조 : 문동진 임명자 장자라 / 오동영 임명자
- 주정현금 : 김혜숙 문제효 박제연 오동영 임명자 이광근 임명자 임명자 장예자
한승훈
- 감사헌금 : 김혜숙 박제연 이광근 박제연(자녀) 전복순 한승훈 임명자/이하브코업
김주형
- 전도헌금 : 장사라(이옥성, 장제규, 장제경, 이옥성, 장지우, 장연우, 장은비)
- 일천번제 : 강선주(600)
-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임명자 한성결 한은총 한하락
- 구역헌금 : 김혜숙 임명자
- 후원헌금 : 안양중앙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비전기도회

오후 1:0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누가복음 10:17~24 (신 109)

말씀제목 70인의 승리와 예수님의 감사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시편 32:1~11 (구 823)

말씀제목 용서받은 자의 노래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부모님 중

성경봉독 열왕기상 21:11~29 (구 553)

대표기도 자녀들 중

말씀제목 의인이 죽음으로 남긴 교훈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5:16~21 (신 291)

말씀제목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월~금)

30일일 눅 10:17-24 70인의 승리와 예수님의 감사

31일월 눅 10:25-37 산한 사마리아인과 예수님

41일화 눅 10:38-42 온혜를 베푸는 분주함

2일수 눅 11:1-4 올바른 기도의 자세

3일목 눅 11:5-13 끈질긴 기도의 자세

4일금 눅 11:14-26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면

5일토 눅 11:27-32 지성사가 되는 마음과 복

6일일 눅 11:33-36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국립교회(오주교회후속)



해외선교(모로코)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가타 기관 선교

오폰도어즈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소

모퉁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우고용마을

- ⑥ 여호와께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어떤 도우심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렘 42:11~12)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라니 두려워하지 말라 ()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 ⑦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하난 일행은 예레미야까지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나님께 받은 경고 내용인가요?(렘 43:10~13)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 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 땅 벤세메스의 ()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들을 불사르리라
- ⑧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의 우상 문화에 또다시 빠져들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심판의 말씀은 무엇인가요?(렘 44:11~12)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과 ()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과 ()에 죽어서 저주와 놀람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 ⑨ 예레미야의 동역자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나요? (렘 45:4-5)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니라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 ⑩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은 가장 먼저 심판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렘 46:26)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 ① B.C 586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왕조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렘 39:6~10)

바벨론의 왕이 랍나에서 시드기아의 눈 앞에서 그의 ()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아의 ()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하였다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 ② 여호아께서 밋기아의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구출시켰던 에벳멜렉에게는 어떤 약속과 축복을 주셨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렘 39:17~18)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눈 앞에 이루어라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이라

- ③ 예루살렘 함락 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에서 살게 되나요? (렘 40:6)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나라

- ④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파견된 유다 총독 그다라의 통치 아래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는데, 그가 암살당하면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다라를 암살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렘 41:1~3)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죽였고 ()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 ⑤ 사태의 위급성을 깨달은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 와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나요? (렘 42:6)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냈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나라

향기로운 삶 : 영적 목마름의 인식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이야기입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그 충격으로 오랜시간 방황하던 중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재기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등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럴 때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망설이며 주저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탐색하며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중함이 발목을 잡아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것 또한 미련한 일입니다. 다소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이다가 결국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명인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전도에 대한 명령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실천할 생각은 접어두고 이 말씀의 신학적 의미가 어떻고 배경이 어찌고 하는 말잔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Just do it!” 어떤 스포츠용품 광고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전도, 그것 역시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해보면 방법이 생기고 그 맛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뉘 놓고 앉아 있는 시간은 휴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서 잠깐 쉬는 시간이 휴식이며 재충전의 기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885	복조 시므리의 모반	왕상 16:16
찬송가	 찬 143장	다 같이	885	오므리 왕의 등극	왕상 16:23
대표기도		자녀 중	824	아합의 등극	왕상 16:29
성경봉독	 왕상 21:11~29	말은 이		엘리아의 시역	왕상 17:1-24
말씀인도	 악인의 죽음이 남긴 교훈	부모님 중	860	아합과 벤하닷의 허무한 대결	왕상 20:1~12
합심기도		다 같이		하나님이 아합을 위해 싸우다	왕상 20:13-21
헌금기도	 찬 521장	말은 이		한 선지자의 아합의 심판 선언	왕상 20:35-43
주기도문		다 같이		나봇의 죽음과 아합의 불순종	왕상 21:1~10

■ 들어가는 말

이세벨은 나봇의 땅을 빼앗기 위해 불량배를 동원해가면서까지, 거짓으로 나봇을 모함하고, 나봇을 죽이고, 그의 아들들까지도 모두 죽이게 됩니다(왕하 9:26). 불의한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불의한 아합에게 안겨줍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것'으로 사건 전모를 조작하여 꾸몄지만, 사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이세벨과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불의한 박해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할까요?

첫째,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도우십니다(11~16).

나봇이 살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보낸 편지를 보고 그녀의 명령대로 시행합니다. 특히 두 명의 불량배가 앞장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누명을 씌우고,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죽입니다. 그 후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이세벨에게 알려줍니다. 이 일을 통해 이세벨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세벨의 죄는 권력남용입니다. 올바른 왕권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해주신 것인데, 이세벨은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와의 율법을 악용하여 율법을 무력화 했습니다. 이세벨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 20:16), '살인하지 말라'(출 20:13),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출 20:17)는 세 가지 계명을 위반합니다. 게다가 이세벨은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출 20:7)는 계명을 들고 나와 의로운 나봇을 죽였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으니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나봇이 죽으면 나봇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이 물려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죄를 지은 자의 땅은 왕이 몰수하는 이방인들의 법령을 따라 몰수합니다.

이 모습은 불의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의로우신 예수님께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악행과 비슷한 면모를 보입니다. '신성모독'의 명목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의 문제를 일반백성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짐"(합 1:4)을 항변하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합 2:4). 의로운 아벨이 가인에 의해 살해당했을 때, 하나님은 "네 아우의 핏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4:10).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의 절규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불의한 자들의 돌팔매질로 죽어갈 때에 스데반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행 7:55). 그는 불의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행 7:56). 스데반을 위해 하늘 법정을 여시고 스데반의 죽음이 의롭다고 변호하는 예수님께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행 7:59)라고 고백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행악자들에게 죄를 명백하게 묻고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17~26)

이세벨은 공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고, 결국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 아합의 불법한 이 사건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아합의 죄는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이세벨이 아닌 아합 왕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세벨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악행에 대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판결하십니다. 정상적이고 편안한 죽음이 아닌 길가에서 살해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의 가문의 남은 자들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는 아합이 이런 심판을 받은 이유를 세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팔았다는 점. 둘째 아내 이세벨의 유혹을 받았다는 점. 아합의 의지와 이방 여자 이세벨의 유혹의 합작품이라는 판결. 셋째 아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가증하게 행동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합의 시대는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으로 인한 죄에 더하여, 이세벨로 인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더해진 결과입니다.

세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누가 진정한 의인인지 증거하십니다(27~29)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아합은 심판 선언에 놀라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합은 갈멜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일, 3년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리신 일, 아람의 왕 벤하닷을 이기게 하신 일 등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 큰 권능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임박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런 아합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을 용서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다음 세대로 미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기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모습으로 아합을 용서하십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더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불의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운 성품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찍 목 베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통곡하며 호소합니다(계 6:10).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계 6:11).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심"입니다(고전 9:20). 지옥은 무서운가요!